

■ 연재-호모미그란스의 역사이론 ② ■

## 이주의 시대 지식과 문화에 관한 에세이: 사이드(Said)의 비코(Vico) 읽기\*

양재혁

홀로 남아 나와 함께 눈물 흘릴 노래여  
내 슬픔을 간직한 노래여, 사람들 사이로  
자비를 구하러 다니지 말라  
지암바티스타 비코<sup>1)</sup>

### I. 머리말

서구 근대를 구성하였던 역사적 사건들, 곧 전쟁, 식민화, 산업화, 자본주의 지구화 과정은 대규모 인구 이동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근대 또는 현대 사회의 형성에서 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이주의 흐름 또는 운동은 교통수단과 정보 기술의 혁신으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형태와 성격을 보여주며 다양한 공동체에게 새로운 시대적 과제들을 제기한다. 국제적 질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의 초국가적 이주는 생태계 문제는 물론 자연적·사회적 재난과 연결되어 ‘지구화’ ‘가속화’ ‘차별화’ ‘여성화’ ‘정치화’와 같은 새로운 경향을 보여준다.<sup>2)</sup> 오늘날을 ‘이주의 시대’로 부르기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 많은 새로운 이주 관련 문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 또는 국가 경계를 넘어 다른 문화, 다른 공동체, 다른 지식에 관한 정보는 오늘날 넘쳐난다. 대중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082514)

1) 지암바티스타 비코, 『절망한 자의 사랑』, Giambattista Vico, 조한욱 옮김, 『비코 자서전 지성사의 숨은 거인』 (파주: 교유서가, 2020), 244-245쪽.

2) Stephen Castles and Mark J. Miller, 한국인민학회 옮김, 『이주의 시대』 (서울: 일조각, 2013), 38-39쪽.

매체에 등장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모습도 낮설지 않다. 사람을 비롯한 자본, 상품, 정보의 이동이 양적·질적으로 발전함으로써 타자에 대한 인식과 지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실을 살펴보면 이주와 난민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폭력적 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민족/국가/경제/에스닉 집단 간의 소통은 여전히 어려우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은 폭력적 대결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이주 형태에 관한 많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주의 일반적인 경향을 도출해내는 분석들은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의문에 부딪치기도 한다. 새로운 경향으로서 제시된 오늘날 이주의 특성이 이전 이주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새로운 것인가? 예를 들어 오늘날의 이주 현상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된 이주의 ‘전지구화’ 경향은 규모나 속도 면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이전에도 확인될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의 이주는 과거 근대 이주의 역사성을 공유하면서도 고유한 시대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이주 문제에 관한 단절적 접근, 곧 새로운 경향만을 강조하는 연구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가적·문화적 경계를 횡단하며 발생하는 이주 또는 이동 문제를 인식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종성(Hybridity)’에 주목하는 연구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주의 시대 문화에 관한 본질주의적 이해에 대한 비판이 확산함에 따라 ‘혼종성’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시대적 경향으로서의 ‘혼종성’ 관련 대표적 논의를 소개하자면, 먼저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는 모든 문화의 역사는 예외 없이 “문화적 차용의 역사”라고 표현하였으며, 역사학자 페리 앤더슨(Perry Anderson)은 오늘날의 시대를 “넘나드는 것, 혼종적인 것, 혼성적인 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혼종성’ 개념은 본질주의적 사유 방식이나 인식 태도를 비판하는 오늘날의 시대적 지적 풍토로 언급될 수도 있지만, “갈수록 더 빈번해지고 강렬해지는 가지각색의 문화적 만남들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우리 시대”를 고민하는 힘을 가졌다고 간주된다. 경제적 전지구화와 더불어 문화적 전지구화를 통해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이 어떤 종류의 혼합체, 즉 경제적 전지구화에 의해 촉진되는 동시에 그 전지구화를 촉진하는 혼종화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터 버크(Peter Burke)는 자신이 지닌 “이중 문화적 혹은 혼합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혼종성’ 논의를 이끄는 대표적인 이론가로서 영국에서 활동하는 인도 출신 호미 바바(Homi K. Bhabha), 자신을 “절대적으로 혼종 문화적인, 문화적 잡종”으로 묘사하는 자메이카 혼혈인

스튜어트 홀(Stuart M. Hall) 그리고 ‘아웃사이더’ 에드워드 사이드를 소개한다.<sup>3)</sup>

오리엔탈리즘 분석을 비롯한 사이드의 작업은 혼종성 관련 논의의 계보에서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뚜렷하게 새기고 있다. 사이드의 혼종성은 특히 문화적 차원에서 그의 용어로 ‘아웃사이더’ 지식인의 삶으로 상징될 수 있다. 아웃사이더 지식인은 혼종의 시대 또는 이주의 시대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화, 공동체, 타자 관련 문제로 구성된 삶을 살아가는 운명을 회피하지 않는다. 사이드는 좌절이 허락되지 않는 치열한 삶을 사는 이주의 시대 지식인 이미지를 생산한다. 그의 지식인은 이주, 추방, 망명과 같은 개별적 경험이 만들어내는 문화적 효과를 성찰하도록 이끈다. 사이드의 지식인은 고정적인 실체, 안식과 위로를 제공하는 기원 또는 인식의 기반과 태만/나태를 일으키는 본질과 같은 전통적 인식 수단으로서의 ‘문화’ 개념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혼란, 불확실성, 어지러움, 즉흥 등으로 구성되는 혼종적 세계로서의 문화 속에서 주변인 또는 횡단자로서 삶을 모색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해야만 한다.

이 글은 혼종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에드워드 사이드의 ‘아웃사이더’ 지식인에 관한 ‘에세이’로 구성될 것이다.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

3)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화적 만남들’은 팬데믹 상황에서 주춤하지만, 그 추세를 볼 때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문화적 만남의 고전적 또는 고정적 이미지는 외국인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을 비롯한 다양한 대중매체 프로그램이 이런 문화적 만남의 충격과 문제를 완화하려 노력하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만남의 영향력에 대해 그것을 예외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려 한다. 그런 노력은 한국 문화의 굳건한 유지에 대한 확신을 전제로 하는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극단적 민족주의적 경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을 지닌다. 소위 ‘다문화’ 가정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될 때, 외래적 요소에 대한 경멸과 공격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한국에 정착하려고 애쓰는 디아스포라 집단, 특히 여성들에게는 경멸적이고 모멸적이며 자기 문화 애호적인 경향으로 이미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명한 거부 또는 반감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적 차이 또는 자기 문화중심적 외래 요소에 대한 이해는 갈등을 잠재화시키며 이에 따라 문제의 발발 시 대처 능력의 부재를 결과할 위험을 가진다. ‘문화적 만남’이라는 표현 역시 이질적 두 세력 간의 접촉이라는 생각에 의지한다는 점에서 문화의 본래적으로 혼종적 의미를 생각할 때 오늘날의 경향을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혼종’ 개념을 통해 현재의 구분에 근거하는 문화 이해를, 지리적 의미의 한국이라는 문화 틀 내에서 외래적 요소를 구획 없이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는 작업은 충분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Peter Burke, 강상우 옮김(이택광 해제), 『문화 혼종성(Cultural Hybridity)』 (서울: 이음, 2012), 10-15쪽.

삶에 관한 느낌이나 체험을 생각나는 대로 쓰는 산문의 형태로서의 에세이가 아니라, 로베르트 무질(Robert Musil)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에세이를 의미한다.

이제, 사유의 이성적 흐름은 진실 또는 거짓일 수 있다. 하나의 감성적 흐름처럼,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또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서. 그리고 감정의 양식을 통해서만 실제로 작동하는 사유의 무리가 있다. 그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에게, 그것들은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다.<sup>4)</sup>

무질에게 에세이는 자연과학에서의 의미로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남겨진 어떤 것이거나 정확하게 작업할 수 없는 영역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엄격한 형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글은 논문에서 요구되는 엄정한 형식을 추구하기보다는 사이드의 문제의식에 대한 이성적 비판과 더불어 감성적 ‘공감’에 기초하여 ‘사유의 흐름’ 또는 ‘사유의 무리’를 따라가고자 한다.

## II. 추방/망명과 비판적 지식인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분석은 비판적 지식인 모델과의 연관성을 지닌다. 잘 알려진 대로 사이드가 분석한 오리엔탈리스트 담론은 지리적·역사적·문화적·민족적 차이와 구분으로 구성된다. 사이드가 다양한 차이로 구성된 담론을 일관된 하나의 스타일, 곧 ‘오리엔탈리즘’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오리엔탈리즘 분석이 의지하는 기반이나 지반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추방자’ 지식인에 대한 사이드의 논의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드는 ‘망명자’, ‘추방자’ 또는 ‘아웃사이더’ 지식인에 관한 논의를 통해 오리엔탈리즘과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연구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과 더 넓게는 문화에 대한 자신의 관념을 그려내기 때문이다.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분석 작업은 오리엔탈리스트

---

4) 인용문은 도미니크 라카프라(Dominick LaCapra)가 『아우슈비츠 이후 역사와 기억』 서론을 시작하기 전에 소개한 시의 일부이다. Robert Musil, “On the Essay”(1914?), Dominick LaCapra, *History and memory after Auschwitz* (New York: Cornell University, 1998), p. vi.

재현의 내용의 진실 혹은 거짓 그리고 오역 혹은 왜곡 여부에 대한 확인 이라기보다는 그 재현의 스타일에 관한 이해와 관련된다. 서구 근대 민족이 통합적인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자신의 역사와 기억을 형성하는 과정은 타자에 관한 지식과 문화를 생산하는 작업과 다름이 없다. 사이드는 동양을 고정화·본질화하는 오리엔탈리즘의 스타일 또는 경향에 대해 명백하게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서, 그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오리엔탈리스트 재현의 형성 과정에 주목한다. 사이드는 '실재의 동양'을 기준으로 하여 오리엔탈리스트 재현과 실제 동양 간의 일치 또는 불일치 여부를 평가하는 작업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작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이주의 시대의 혼종적 문화 공간은 사이드에게는 망명 또는 추방으로 경험된 이주라는 개인적 사건의 여파(aftermath)로 구성될 것이다. 사이드는 포스트(post) 이주 상황에 고개를 돌리고 가장된 안락을 취하며 기성 질서에 순응하는 입장 대신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변혁하려는 입장, 곧 망명 지식인의 입장을 지지하는 비판적 인문주의자임을 자처한다.

제가 다루는 것은 인문주의와 비판적 실천으로서, 오늘날 교전과 실제 전쟁, 각종 테러리즘으로 넘쳐나는 이 혼란스런 세계를 살아가는 선생이자 지식인으로 한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인문주의입니다.<sup>5)</sup>

잘 알려진 대로 사이드는 1935년 영국이 지배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1947년 영국의 다른 식민지 이집트 카이로로 망명하였고, 이후 1950년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추방, 실향과 서구 식민지에서의 삶으로 구성되는 어린 시절 경험은 지식인에 관한 사이드의 비판적 개념의 원형을 구성할 것이다.

이집트에서 **샤미**(*shami*: 아랍동양계)로서의 경험, 식민지 영국의 학교에서 아랍 학생으로의 경험, 무슬림이 다수인 사회에서의 비-무슬림으로의 경험, 미국 학교와 대학교에서 팔레스타인 아랍 청년으로의 경험과 1948년의 나크바(la nakba)의 충격(그에게도 동일

---

5) Edward W. Said, 김정하 옮김, 『저항의 인문학: 인문주의와 민주적 비판』 (서울: 마티, 2012), 20쪽.

한 사회 계급의 다른 팔레스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충격은 약화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이드의 작품을 특징짓는 극도의 섬세함과 열정에 기여한다.<sup>6)</sup>

사이드는 지식인을 실향의 아픈 경험 또는 상처를 간직한 “망명자/추방자(exile), 주변인(marginal), 아마추어, 그리고 권력에게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언어의 저자”<sup>7)</sup>로 정의하며 추방자의 위치 또는 지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추방된 자는 새로운 틀에 완전하게 통합되지 못하고 과거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절반-참여와 절반-분리로 어려움을 겪으며(assaili par les demi-engagements et les demi-détachements), 한편으로는 노스텔지어의 감성적인 중간적인 상태에 살며, 다른 한편으로는 능숙한 광대 또는 숨겨진 버림받은 자(paria)로 산다.<sup>8)</sup>

이 구절에서 ‘망명자/추방자’ 또는 ‘아웃사이더’ 지식인의 위치 또는 입장은 단지 그가 겪은 물리적·지리적 추방이라는 경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추방자’는 기원의 장소, 고향으로부터 분리되고, 끊어지고, 격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현재 살고 있는 세계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고 그 외부 또는 경계에 위치한다. 따라서 추방자 지식인은 체류하는 사회에 대하여 엄정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사이드는 지식의 입장을 고정관념, 상투적 관념 또는 관용어의 관습적 사용에 대한 저항과 전투라고 말한다. 사이드는 불안, 고통, 용기와 같은 표현을 통해 지식인을 묘사한다.

---

6) ‘나크바’(nakba)는 아랍어로 재난을 의미하며, 따라서 ‘1948년 나크바’는 이스라엘 건국과 동시에 팔레스타인 공동체의 몰락과 팔레스타인 민족의 이산이 시작된 재난 또는 재앙의 원년을 의미한다. Rashid Khalidi, “Edward Said et la Palestine. Entre université et politique, public et privé”, Sonia Dayan-Herzbrum(dir.), *Edward Said théoricien critique, Tumultes*, N° 35 (Paris: Éditions Kimé, 2010), p. 15.

7) Edward W. Said, *Representations of the Intellectual* (New York: Vintage, Reprint edition, 1996), p. xvi; Paul Chemla(trad.), *Des intellectuels du pouvoir* (Paris: Le Seuil, 1996), p. 15.

8) Edward W. Said, *Representations of the Intellectual*, p. 49; Paul Chemla(trad.), *Des intellectuels du pouvoir*, p. 65.

지식인이 임시로 거하는 집은 유감스럽게도 그 안에서 누구도 후퇴하거나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긴급하고 저항적이며 비타협적인 예술의 영역이라는 생각으로 저는 끝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불안정한 추방의 장소 속에서 포착될 수 없는 것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먼저 포착할 수 있으며 어찌 되었든 애쓰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sup>9)</sup>

이런 의미에서 ‘추방자/망명자’ 위치는 사이드가 유년 시절에 체험한 경험으로 환원될 수는 없음은 분명해 보인다. 추방은 유년 시절에 벌어진 사건으로서 과거에 고정되어 머물지 않는다. ‘망명자’라는 자리는 안락, 길들여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관대함이라는 시도에 계속해서 주 의하며 경계하는 의식을 지닌 지식인의 장소이자 임무이다. 사이드에 따르면 두 부류의 지식인이 있다. 첫 번째 부류는 “예라고 말하는 자(yea-sayers)”라 불리며 이들은 기존 사회에 잘 적응한다. 다른 부류 “아니라고 말하는 자(nay-sayers)”는 추방자 또는 아웃사이더로서 전자와는 반대로 특권, 권력 그리고 명예에 저항하는 부류이다.<sup>10)</sup>

사이드의 저서들을 살펴보면 추방은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메타포적 조건을 의미한다. 역사에서 발생된, 강제된 이주로 나타나는 추방은 “겨울의 정신”, 극복할 수 없는 슬픔, 구렁, 미로, 치유되지 않는 상처 그리고 사이드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던 아도르노의 용어를 빌자면 “잘려진 삶”을 나타낸다. 뿌리 뽑힘과 퇴거의 경험, 토지와 과거 상실의 경험, 평범한 삶을 허용하지 않는 이런 실제 경험들이 사이드의 저서와 사유를 떠나지 않는 역사적 조건을 구성한다. 한편 추방은 메타포적이기도 하다. 사이드에게 추방은 항상 비판적이고 반역적인 창조성의 조건이자 비판적 지식인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1947년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추방된 사이드의 강압된 ‘외부성’의 위치/지위는 그의 전기와 저서에서 원형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저항의 도구, 해방과 이동의 제스처이자 최종적으로는 해방적인 선택으로 전환된다.<sup>11)</sup>

9) Edward W. Said, 『저항의 인문학: 인문주의와 민주적 비판』, 188쪽.

10) Edward W. Said, *Representations of the Intellectual*, pp. 52-53; Paul Chemla(trad.), *Des intellectuels du pouvoir*, pp. 68-69.

11) Laetitia Zecchini, “«Je suis le multiple». Exil historique et métaphorique dans la pensée d'Edward Said”, Sonia Dayan-Herzbrum (dir.), *Edward Said théoricien critique, Tumultes*,

아웃사이드 지식인의 위치는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사물들을 보도록 하며 “일련의 역사적 선택과 남성과 여성의 활동에서 나오는 사회적 현상들과 사물들을 관련짓도록 한다.” 이러한 지식인의 태도는 “신이 원하거나 결정한, 변화되지 않고 영속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자연 현상의 반대”를 구성한다.<sup>12)</sup> 사이드는 스스로를 ‘이방인’으로 명명한 이탈리아 철학자, 지암바티스타 비코(Giambattista Vico)를 지식인의 전형으로 삼았다.

비코는 자신의 고향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거의 알려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심정으로 고독한 삶을 영위했다 할지라도 학문의 지식으로 신뢰를 쌓은 늙은 사람들을 지혜의 신으로서 멀리서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 그는 더 큰 진척을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고, 타인의 취향이나 지적 수준에 맞춰 살면 된다고 가르치는 악의적이고 무지한 스승의 말을 거스르는 젊은 이들 특유의 성향을 갖고 있었다.<sup>13)</sup>

문인으로서 명성을 얻기 전, 바틀라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고향 나폴리로 돌아온 비코의 언급에서 드러나듯이, 사이드에게 비코는 일종의 “대항전통”(counter-tradition)<sup>14)</sup>을 수행하는 지식인의 모범이다. 사이드는 이 대항전통으로부터 작가, 지식인 또는 더 넓게는 현대의 인문주의자가 정치적이고 대중적인 참여 모델로서 인문학을 구성할 수 있다고 믿었다.<sup>15)</sup>

이런 지적 입장의 위대한 원형을 오래도록 나의 영웅인 18세기 이탈리아 철학자 지암바티스타 비코가 보여준다. 부분적으로는, 교회와 주변환경과 마찰을 빚으며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무명의 나폴리 교수로서의 외로움으로부터 만들어진 비코의 위대한 발견은, 사회적 실재를 이해하는 적절한 방법은 사회적 실재를, 항

---

p. 50.

12) Edward W. Said, *Representations of the Intellectual*, pp. 60-61; Paul Chemla(trad.), *Des intellectuels du pouvoir*, p. 77.

13) Giambattista Vico, 『비코 자서전 지성사의 숨은 거인』, 72쪽.

14) Timothy Brennan, “The Making of a Counter-Tradition”, Müge Gürsoy Sökmen and Basak Ertür (ed.), *Waiting for the Barbarians: A tribute to Edward W. Said* (London and New York: Verso, 2008), pp. 7-8.

15) Maria-Benedita Basto, “Corps poétique et critique démocratique”, Sonia Dayan-Herzbrum (dir.), *Edward Said théoricien critique, Tumultes*, p. 103.



이주의 시대 지식과 문화에 관한 에세이: 사이드(Said)의 비코(Vico) 읽기

상 극도로 미천한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기원 지점으로부터 발생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사물들을, 성인이 용알이하는 아기로부터 나타나듯이, 확고한 시작으로부터 진화하는 것으로 바라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는 위대한 저서 『새로운 학문』에서 말했다.<sup>16)</sup>

사이드에게 ‘이방인’ 비코는 단순히 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우위에 서지 못하는 주변인과 서벌턴(Subaltern)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또는 학문적 기성체제에 굴복하지 않는 대항적 태도와 주류적 사유에 대항하여 자신의 고유한 문제의식을 부단하게 비판적 시각으로 정교화하는 의지를 나타낸다.

비코에 따르면, 세속 세계는 ‘역사적’이며, 따라서 자신의 고유한 법칙과 과정을 가진다. 인간 세계는 신의 창조 대신 자신의 고유한 시작 지점을 지니며, 그로부터 고유의 법칙에 따라 진화해 온 역사를 가진다. 지식인은 그 역사를 차갑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비코는, 이것이, 그가 수없이 반복하여 다시 말했던, 세속 세계에 관하여 유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관점이며, 세속 세계는, 신에 의해 정해지지 않은 자신의 고유한 법칙과 과정을 지니며, 역사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로부터 인간 사회에 대한 숭배가 아닌 존경이 뒤 따른다. 당신은 권력들 중에서 가장 웅장한 권력을 그것의 시작과 관련하여 바라보고, 그것이 어디로 이끌려 가는지를 본다; 장엄함을, 그러나 그것이 발생하였던 불가피하게 더 비천한 인간의 기원들이 아닌 그 장엄함을 항상 보았던(그리고 따라서 숭배하였던) 누군가인 원주민에게 침묵과 두려운 복종을 강요하는, 위엄있는 인물 또는 장대한 제도에 당신은 경외감을 갖지 않는다. 망명 지식인은 필연적으로 아이러니하고 회의적이며 심지어 놀이를 즐기지만—그러나 냉소적이지 않다.<sup>17)</sup>

비천한 단계로부터 발생한 세속 사회의 역사에 관한 비코의 관찰은 사실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분석의 기초를 구성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

---

16) Edward W. Said, *Representations of the Intellectual*, p. 61; Paul Chemla(trad.), *Des intellectuels du pouvoir*, p. 77.

17) Edward W. Said, *Representations of the Intellectual*, p. 61; Paul Chemla(trad.), *Des intellectuels du pouvoir*, pp. 77-78.

이드는 인간 역사에 관한 비코의 위대한 관찰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은 자신의 역사를 만들며,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만든 것이라는 비코의 위대한 관찰을 우리는 진지하게 수용하고 그것을 지리로까지 확장해야만 한다: 지리적이며 문화적인 실체로서 역사적 실체는 말할 것도 없고 “동양”과 “서양”과 같은 그런 현장(locales), 지역(regions), 지리적 영역은 인간이 만든 것/인공적(man-made)이다.”<sup>18)</sup>

사이드는 자연적 실체로서의 동양 대신에 서양과의 구분을 기반으로 생성되고 변화하는 동양에 대해 말한다. 오리엔탈리즘에서의 동양은 인간의 의식적, 무의식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구성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고정된 실체로서의 동양이라는 허상에서 빠져나와 역사적 형성물로서의 동양에 관한 인간의 담론과 행위가 지닌 다양한 의미들에 접근할 수 있다. 비코의 역사 관찰에 기반을 두고 사이드는 동양은 ‘서구’라는 개념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관념이라고 말한다. 동양은 “서구에서 그리고 서구를 위하여 그것[동양]에게 실재와 현진(reality and presence)을 제공하였던, 역사와 사유, 상상과 어휘의 전통을 지닌 하나의 관념(an idea)”이다.<sup>19)</sup>

### III. 비코와 오리엔탈리즘

비코의 사상에 대한 사이드의 관심은 초기 저작 『시작: 의도와 방법』(*Beginnings: Intention and Method*)<sup>20)</sup>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이드는 비코를 ‘시작’,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저서의 제목처럼 복수의 ‘시작들’에 대한 최초의 철학자라 부른다. 사이드에 따르면, 비코는 ‘문명’으로서의 인류 역사를 하나의 신성한 기원으로부터가 아닌 다수의 시작으로부터 진행된 과정으로 서술한다. 이 시작은 서구 문명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신과 관련된 성스러운 기원(origin) 또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며, 오늘날의

---

18) Edward W. Said, *Orientalism* (London: Penguin Books, 2003), p. 5.

19) *Ibid.*, p. 15.

20) Edward W. Said, *Beginnings: Intention and Method* (New York: Basic Books, 1975).

문화인류학적 연구와 비교할 수 있는 비코의 ‘문헌학’이라는 연구 방법을 통해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세속적 세계 안에서 인간의 삶은 진행되고 바로 이 세속적 세계에서 역사는 인간 개인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생각과 관련하여, 에리히 아우어바흐(Erich Auerbach)를 경유하여 사이드에게 이르는 “비코에게의 오래된 부채”<sup>21)</sup>를 확인할 수 있다.

‘인간 지식’ 그리고 문명으로서의 복수의 ‘민족들’에 대한 비코의 인식은 사이드의 문화 관념에 영감과 기반을 제공하며, 오리엔탈리즘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비코는 ‘인간 지식’과 관련하여, 인간 정신은 한계를 갖지 않는 특성에 따라, 인간이 무지한 상황에 빠졌을 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우주의 기준으로 간주한다고 말한다. 비코는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220] 인간은 자신과 관련된 의심되고 모호한 사물들을, 자연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본성 그리고 그로부터 나타나는 열정과 관습에 따라 해석한다.<sup>22)</sup>

인간은 세계를 자신으로부터 이해한다. 비코는 인간 정신이 지닌 이와 같은 자명한 원리 또는 공리(axiom)를 인간 정신의 “존엄”(dignity)이라고 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20] 인간 정신의 무한한 성격으로, 인간 정신이 무지에 빠질 때, 인간은 자신을 만물의 척도로 삼는다.

[122] 인간 정신의 또 다른 속성은, 인간이 멀리 떨어져 있고 알지 못하는 사물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을 때 인간은 그에게 알려지고 존재하는 사물에 따라 그것을 판단한다.<sup>23)</sup>

---

21) Moustafa Bayoumi, “Réconciliation sans contrainte. Said, Adorno et l’intellectuel autonome”, Sonia Dayan-Herzbrum (dir.), *Edward Said théoricien critique, Tumultes*, p. 30.

22) Giambattista Vico, Alain Pons (tran.), *La Science nouvelle: Principes d’une science nouvelle relative à la nature commune des nations 1744* (Paris: Fayard, 2001), p. 105; Giambattista Vico, Thomas Goddard Bergin & Max Harold Fisch(trans.), *The New Science* (Cornell University Press, 1948/1959), p. 68; Giambattista Vico, 조한욱 옮김, 『새로운 학문』 (서울: 아카넷, 2019), 182쪽. 이 글에서 참조한 비코의 『새로운 학문』은 불어번역본, 영어번역본, 한글번역본이며, 인용은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불어본을 중심으로 한다.

비코의 인간 정신에 관한 언급은 사이드가 분석한 오리엔탈리즘이 작동하는 본질적인 메커니즘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비코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대상을 자신이 체험한 고유한 경험을 가지고 친근하도록 만들면서 그것을 이해하려는 경향을 지닌다. 인간 정신이 생산하는 지식의 주요한 특성 중의 하나가 낯선 것, 곧 친근하지 않은 것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또는 자신을 척도로 삼아 친근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우리는 이런 경향을 오리엔탈리즘의 작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간 지식에 대한 비코의 설명은 오리엔탈리즘의 재현 과정이 사실 또는 실재에 대한 객관적인 반영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이끈다. 비록 오리엔탈리스트가 자신에게 친근하지 않은 이국적인 대상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진정한 지식을 수립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그가 주장하는 동양 관련 지식은 동양에 관해 말한다기보다는 서양에 대해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오리엔탈리스트가 ‘멀리 떨어져 있어 알려지지 않은’ 사물(동양)을 마주하게 되면, 자신의 세계에서 ‘존재하고 알려진 사물들’, 곧 서양의 사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에 따라 낯선 동양을 친근한 것으로 변환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리엔탈리즘은 사실 이국적 대상에 대한 새로운 지식의 축적이라기보다는 서양 자신에 관한 지식의 확장을 의미한다. 요약하자면,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에 관한 서양 지식의 구성 또는 팽창이다. 따라서 근대 오리엔탈리즘 역사에서 동양의 자리에 어떤 문화, 종족, 민족, 관습이 오더라도 서구 지식의 확장에 아무 걸림이 없던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서구의 척도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Procrustean bed)처럼 어떤 타자도 다룰 수 있는 보편적 지식 기준이었다.

실제 오리엔탈리즘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리엔탈리스트가 알려지지 않은 낯선 곳에 가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지식에 의존한다. 그가 실제 마주한 동양 세계를 기존 지식을 가지고서 이해할 수 없을 때, 우선 ‘신비한 동양’(mysterious Orient)이라는 관념, 재현 또는 이미지가 생성된다. 하지만 이 알 수 없는, 미지의 ‘신비한 동양’이라는 관념은 중립적이고 결백하며 이해관계가 없는 재현을 의미할 수는 없다. 그것은 ‘신비’라는 표현은 동양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곧 무지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은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신비’는 ‘무지’라기보다는 새로운 의미

---

23) Giambattista Vico, *La Science nouvelle*, p. 85; Giambattista Vico, *The New Science*, p. 54: 『새로운 학문』, 148쪽.

부여이다. ‘신비한 동양’ 관념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저자에 따라, 다양한 의미들과 결합하여, 부정적이고, 열등하고, 침묵하고, 여성적인 동양과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런 다양성을 가로질러 오리엔탈리즘의 스타일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것, 곧 대상으로서의 동양의 위치, 그 당연한 결과로서 관찰자로서의 서양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분석에서 나타나는 ‘외부성’(exteriority) 개념이 의미하는 것이다. 오리엔탈리즘은 외부성에 기초한다. “오리엔탈리즘은 외부성, 다시 말해 시인이든 학자이든, 오리엔탈리스트는 서양을 위해 그리고 서양에게 동양을 말하게 하고 그것을 묘사하고 그것의 신비들을 밝혀준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sup>24)</sup> 따라서 오리엔탈리즘 형성의 전제이자 기반인 ‘외부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없다면, 서양과 동양은 이원적 대립으로 고정되는 영원 속에 갇힐 것이고, 두 세계 사이의 문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 문명에 대한 비코의 해석은, 동양에 대한 오리엔탈리스트 재현에 나타나는 서구 근대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본질주의적 사유 경향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도록 안내한다. 사이드의 작업은 동양에 관하여 새로운 해석을 생산하였다기보다는, 넓은 의미에서는 서구 유럽 ‘근대성’에 대한 비판이자, 역사의 문헌학적 연구에 기반을 두는 서구 지성사 영역에서 새로운 사유 양식에 대한 요구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은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분석의 방법론적 무기인 푸코의 사유 역시 근대 서구의 대문자 ‘이성’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설득력 있어 보인다.

한편 비코의 인간 지식에 대한 논의는 서구 지성사에 대한 사이드의 문제의식과 깊은 연관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비코는 인간 지식에 관한 유명한 근본 원칙을 제시했다. 지식은 그 기초로서 ‘진실한 것’[le vrai(verum)]과 ‘만든/만들어진 것’[le fait(factum)] 간의 일치를 지닌다. 이 원칙으로부터 비코 사유의 다른 원칙들이 발생한다.<sup>25)</sup>

베룸(verum)과 팩툼(factum) 단어들, 진실/진리(le vrai)와 만듦/사실(le fait)은 라틴인에게는 서로 호환되거나, 스콜라 철학이

24) Edward W. Said, *Orientalism*, pp. 20-21.

25) Isaiah Berlin, “Le concept de connaissance chez Vico”, André Berelwitch(trad.), *A contre-courant : Essai sur l'histoire des idées* (Paris: Albin Michel, 1988), pp. 178-187.

말한 바대로, 서로 변환된다. [……] 따라서 우리는 고대 이탈리아 인들은 진실/진리에 관한 다음의 독트린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진실은 만들 자체이며, 그러므로 신은 첫 번째 진리이다. 그가 최초의 창조자 <요소(Factor)>이기 때문이다.<sup>26)</sup>

비코는 진실인 것과 만든 것의 일치와 상호 변환이라는 비판적 원칙을 제시한다. 이는 신이 만들었기에 인간이 완전하게 알 수 없는 것 그리고 인간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 곧 인간의 역사 사이에 근본적인 구분을 두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역사를 만들고 그가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서로 알려지지 않은 민족들이 그들이 만들고 행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민족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동일한 관념은 진리에 관한 공동의 모티브를 갖고 있을 것이다.

비코는 베룸(le verum)을 그 단계들을 증명할 수 있는 수학을 예로 들며 설명한다. 베룸은 주체가 알고 있는 그 자신이 창조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우리가 수학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이지, 데카르트가 생각하듯이, 수학이 실제의 영원한 본성을 표상하는 객관적 구조를 발견했기 때문은 아니다. 비코에게 진리의 기준은 만들고 행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는 자연적 힘과 상상과 같은 인간적 행위 사이의 연속성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비코는 역사가의 작업에서 특별한 것과 구체적인 것의 연구를 강조한다. 인간의 역사학은 “신의 창조” 또는 “인간의 본질”과 같은 본질적 개념이나 연역적·귀납적 사유를 수단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역사인류학적 방법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코 연구 논문에서 자주 인용되는 다음의 글은 진실한 것과 만든 것간의 일치라는 비코의 원칙을 잘 보여준다.

[331] [……] 이 문명 사회 세계는 분명하게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그러므로 우리의 고유한 인간 정신의 변화들 속에서 그 세계의 원칙들을 찾아야 하며, 그 원칙들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누구든 그 원리에 관하여 성찰하면, 어떻게 철학자들이, 신이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만이 그 과학(science)을 알 수 있는 자연 세계에 대한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 가장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왔

---

26) Giambattista Vico, *L'Antique sagesse de l'Italie*, traduit par Jules Michelet (1835), présenté et annoté par Bruno Pinchard (Paris: Flammarion, 1993), pp. 71-72.

이주의 시대 지식과 문화에 관한 에세이: 사이드(Said)의 비코(Vico) 읽기

으며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바로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에 대한 과학을 획득할 수 있는 민족 세계, 곧 문명 세계에 대한 연구를 경시해왔는지를 보게 되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sup>27)</sup>

인간 지식에 대한 비코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민족들에 대한 비코의 설명은 역사적, 문헌학적 그리고 어원학적 연구의 결과물인 베룸(le verum)과 팩툼(le factum)의 동일성 원칙과 연관된다. ‘민족’은 비코의 ‘새로운 학문’의 대상을 구성한다. 다시 말해 ‘새로운 학문’의 고유한 주제는 다양한 민족들에서 확인되는 공동의 관념 또는 생각이며 그것이 문명 세계와 관련된 “진리의 공동 기반”이다.<sup>28)</sup>

[333] 문명화되든 야만적이든 모든 민족은, 시간과 공간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써 분리되어 수립되었지만, 다음의 세 가지 인간 관습을 유지한다: 모든 민족은 어떤 종교를 가지며, 모든 민족은 엄숙한 혼약을 맺으며, 모든 민족은 죽은 자를 매장한다. 그리고 아무리 미개하고 원시적 민족이라도 종교, 결혼 그리고 장례보다 더 정성을 들인 의식들과 더 신성한 엄숙함으로 기념되는 인간 활동은 없다.<sup>29)</sup>

비코에 따르면 종교, 결혼, 매장이라는 세 가지 사회적 실천이 민족들의 보편적이고 영속적인 원칙을 제공하는 진리의 공동 기반을 구성한다. 이 세 가지 인간 관습이 존중될 때, 인간은 민족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족, 문명 집단 또는 사회에 대한 비코의 이런 관점은 “본질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가진 대립의 두 개의 거대한 블록(동양과 서양)”으로 근본적으로 분리된 오리엔탈리스트 문명관과 대립된다. 비코의 원칙들은 서구 근대 오리엔탈리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동양과 서양 문명 간의 근본적으로 구분하는 분리와 간극 그리고 동양 문명에 대하여 근대 서양 문명이 위협하게 투사하며 유지하고 있는 “관에 박힌 표현”과 “상투적인 재현”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지지할 것이다.<sup>30)</sup>

---

27) Giambattista Vico, *La Science nouvelle*, p. 130.

28) *Ibid.*, p. 131.

29) *Ibid.*, p. 131.

30) Edward W. Said, *Representations of the Intellectual*, p. 11.

#### IV. 타문화 이해 가능성

사이드의 ‘인문주의’는 다른 문화의 이해 가능성에 대해 사유할 기회를 제공하며 지배적 야망을 배제하며 타문화를 이해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동양에 대한 준신화적인 구성을 수행하였던 서구 근대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사이드의 분석은 근대 오리엔탈리스트 재현이 형성되는 과정을 다시 읽고, 그와는 다른 방식으로 타문화를 이해할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시도로서, “자신 지평의 공존과 확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의지는 지배하려는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한다.<sup>31)</sup> 비코의 문명 관련 논의는 타자 또는 타문화 이해 가능성 문제에 관한 논의에 영감을 제공한다. 비코에 따르면 인간은 공동의 기반 위에서 세속적 세계 또는 민족을 형성한다. 자연 세계는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 오직 불완전한 지식만을 갖지만, 인간은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원리 또는 원칙에 따라 자신의 문명 세계를 만들었다.

비코의 독창적인 주장은, 역사에 무관심하고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분명하고 명료한 데카르트적 추상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인간 존재가 역사적 창조물임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역사를, 비코가 “민족/국가들의 세계”라고 부른 것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역사를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까닭은 “인간이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만든 것만을 알 수 있으니 말입니다.(신이 자연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자연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비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텍스트의 형태로 오는 과거의 지식은 오직 그 과거를 만든 이의 관점으로만, 적절히 이해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sup>32)</sup>

인간은 민족의 세계, 곧 문명 세계의 역사를 만든다. 인간은 “야수 상태의 인간(les bestioni)”으로부터 나왔으며 대지의 거대한 숲을 가로지르

---

31) Edward W. Said, “Vingt-cinq ans après la publication de « L’Orientalisme » : L’humanisme, dernier rempart contre la barbarie”, *Le Monde diplomatique*, septembre 2003, pp. 20-21. <http://www.monde-diplomatique.fr/2003/09/SAID/10386> (검색일: 2022. 3. 20).

32) Edward W. Said, 『저항의 인문학: 인문주의와 민주적 비판』, 126-127쪽.



는 유랑을 통해 문명으로 나아갔다. 그 과정에서 모든 민족은 예외 없이 세 가지 근본 원칙/원리를 만들었다. 비코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역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을 갖지 않은 민족의 경우, 어떠한 신의 계시 없이, 어떤 신성이나 우연에 의지하지 않고, 그 탄생과 역사가 그 스스로의 선택과 행위로 설명될 수 있는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신앙을 갖지 않은 민족의 역사를 통해 신성한 기원이나 신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간 역사의 ‘시작’ 또는 문명의 발생을 설명하는 비코의 독창적 사유, 곧 세속적이고 이교적인 문명의 ‘시작’이라는 비코의 해석<sup>33)</sup>으로부터 사이드는 서구의 전통적인 신성한 ‘기원’ 대신 “다원주의적 문화”의 가능성과 인간 문명의 역사에서의 ‘다양성’에 대한 확신을 이끌어 낸다. 이런 확신 위에서 사이드는 서구 근대 오리엔탈리즘의 “세계적 헤게모니”를 비판하면서 하나의 공식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인간 삶의 상호의존과 친밀함의 의미”를 강조한다. 사이드가 “인문주의”(l’humanisme)라 부른 문화 연구의 경향은 문화에 대한 다원주의적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문화, 다른 사회, 다른 시대와의 공동성 또는 공통성의 감성으로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34)</sup>

사이드의 ‘인문주의’는 이사야아 벌린(Isaiah Berlin)의 ‘문화 복수주의’ 논의와도 연관시킬 수 있다. 벌린(Berlin)은 『새로운 학문』의 문헌학적으로 혁명적인 개념들과 원칙들을 오늘날 인문 과학 지식의 근본으로 간주하면서, 비코로부터 문명 세계의 창조자로서 또는 역사의 주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새로운 사상을 발견하였다. 벌린은 ‘문화 복수주의’의 구성적 요소들과 관련하여 비코를 ‘문화’라는 관념에 대하여 인식하고 “역사적 지식의 성격”을 이해하고자 시도한 최초의 철학자라고 평가한다. 벌린의 ‘문화 복수주의’는 비코의 사유, 특히 그중에서도 “역사성” 관념과 “인간 지식”에 관한 인식론에 기반을 둔다고 말할 수 있다.<sup>35)</sup>

---

33) 비코는 섭리(la Providence)에 관해 말할 때도 기독교 자료 대신 세속적 자료를 인용하였다. Paolo Cristofolini, *Vico et l'histoir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5), p. 88.

34) Edward W. Said, “Vingt-cinq ans après la publication de « L'Orientalisme »”, pp. 20-21.

35) 이사야아 벌린은 비코로부터 자신의 ‘가치복수주의(valeur-pluralisme)’를 이끌어 냈다. 벌린의 가치복수주의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가치들은 단지 진실할 뿐만 아니라 대립하며, 이 대립하는 가치들은 합리적으로 통약불가능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Michael Jenkins, *Christianity, Tolerance and Pluralism: A Theological Engagement with Isaiah Berlin's Social Theor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4), p. 31.

별린은 인간 역사에 관한 비코의 설명으로부터 ‘이상적 문화’ 또는 ‘완전한 사회’라는 관념에 대한 비판의 단서를 찾았다. 비코에 따르면 인간의 역사에는 단수 또는 단독의 유일한 문화가 아닌 복수의 특수한 문화들이 존재하며, 각각의 문화는 그것만의 고유한 가치와 목표를 지닌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의 연속으로 이해되는 인간 역사들은 서로에게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삶의 양식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의 다양성에 관한 이해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비코는 자신이 사는 시대가 이전 시대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경계한다. 그와 같은 자기 문화에 대한 우월적인 생각이 세계에 대한 다른 시각을 이해하는 데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민족들이 가장 폭력적인 열정에 이끌렸고, 민족의 창시자들이 “시인-신학자”였으며, “판타지”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였던 야만의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문화 또는 시대에 대한 우월한 의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코는 다양한 역사 시대를 살았던 인간의 정신적 구조에 다르기 위해서는, 그의 신화와 우화의 의미를 이해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신화와 전승된 이야기를 세계에 대한 시각 또는 이해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야만 또는 원시 민족의 언어는 무지와 거칠음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어와 마찬가지로 고유한 역사적 경험을 표현한다.<sup>36)</sup>

비코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수단으로는 호메로스 시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호메로스(Homère)의 영웅들은 그들 고유의 역사 진행 속에서 그들의 시대에 깊이 뿌리내린 구체적인 인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들 고유의 역사적 시각을 통해서만이 호메로스의 영웅들과 신들이 보여주는 열정적이고, 관능적이며, 사납고, 거친 특성들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비코에게 호메로스는 한 명의 시인이 아니다. 호메로스의 시는 그리스 민족이 알고, 체험하고 표현하는 모든 것

36) Paolo Cristofolini, *Vico et l'histoire*, pp. 68-69; Giambattista Vico, *La Science nouvelle*, pp. 104-105. 비코는 자연과 인간 삶의 모든 현상에 판타지 언어로 신들의 이름을 부여한 자를 ‘시인-신학자(poètes-théologiens)’로 명명한다. 원시인과 관련하여 비코는 『새로운 학문』에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218] 인간은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먼저 느끼고, 다음으로 혼란하고 동요된 영혼으로[animo] 알아차리고, 마지막으로 순수한 정신[mente]으로 숙고한다.”

“[219] 이런 존엄[공리]은, 이성적 사유와 숙고로 형성되는 철학적 규범들과 다른, 열정과 감정의 감성들로 구성되는 시적 규범들의 원칙을 수립한다. 이로부터 철학적 규범들은 보편적인 것들을 향해 고양될수록 그만큼 더 진리에 접근하며, 시적 규범들은 특수한 것에 적용될수록 그만큼 더 확실해진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의 종합으로서 인간 역사의 특수한 경험이다.

사실, 여기서 찾은 그리고 여기서 동일하게 발견된 시의 다른 원칙들의 결과인 신화의 다른 원칙들 덕분에, 전설들은 그리스 태고 민족들의 관습에 관한 진실되고 신뢰할 수 있는 역사였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신들에 관한 전설들은 가장 거친 이교도 인간이 인류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모든 사물은 신들이라고 믿었던 시대의 역사였음이 증명된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런 시들의 작가들은, 신들이 이교도 민족들을 세웠다고 신들과 관련된 전설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시인 신학자들로 모두 구성되었던 것으로 알려진, 최초의 민족들(les premiers peuples)이다.<sup>37)</sup>

비코의 역사주의에 따르면 모든 인류와 인류의 창조물은 각각의 역사적 순간마다 고유한 의미를 지니며, “어떤 민족의 역사도 인류의 일반적인 발전에 대한 단일 모델일 수 없다”.<sup>38)</sup> 문명의 역사 외부에서 한 시대 또는 한 문화의 우월성을 가정하는 사상들을 배제하는 비코의 “문화적 역사주의”로부터 별린은 자신의 ‘문화적 복수주의’의 중심축을 만든다. 그 핵심적 내용은 별린의 “통약불가능성(incommensurabilité)”이라는 개념으로 결집된다고 말할 수 있다. 비코 그리고 사이드와 마찬가지로 별린은 철학이 실제의 그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완벽하게 논리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실제에 대한 단 하나의 유일한 구조가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sup>39)</sup>

한편 별린은 인식론과 관련하여 비코의 ‘지식’ 개념이 철학적 전통에서 주목할 만한 새로움을 지닌다고 평가한다. 지식에 대한 비코의 이론은 무엇보다, 언어, 역사, 시학, 수사학과 같은 연구와 결별하기를 강요하며 실제의 진리가 지닌 본성을 향하는 길로서 수학을 추구하였던 데카르트식 방법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데카르트식 방법은 수학이 실제의 객관적 구조와 상응한다고 가정하면서 상상을 배제하고 종합에 대한 분석의 우위를 인정하고, 언어와 표현의 작용으로 살아가는 구체적 인간에 관

---

37) 인용문에서 ‘여기서’는 비코가 『새로운 학문』에서 소개하는 새로운 원리 ‘대문자 과학(Science)’을 의미한다. Giambattista Vico, *La Science nouvelle*, p. 12.

38) Paolo Cristofolini, *Vico et l'histoire*, p. 49.

39) Michael Jinkins, *Christianity, Tolerance and Pluralism: A Theological Engagement with Isaiah Berlin's Social Theory*, p. 37.

한 연구를 거절한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한 것과 만든 것의 일치라는 원칙과 관련하여 보았듯이, 비코에 따르면 수학은 실제의 영원한 본성을 재연하는 객관적 구조를 발견할 수 없다. 인간은 수학을 만들었을 뿐, 수학이 거론하는 실재를 창조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수학은 인간의 창작일 뿐이다. 비코에 따르면 과학(*la Science*)은 완전한 진리를 주는 지식이다. 우리는 논리학, 수학, 시학적 창조와 같이 우리가 행하고 만든 것에 대해서만 ‘과학’을 수립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세속 세계는 인간이 만들었기에 그 원칙을 밝히는 것은 가능하다. 상상력을 통해 우리와 다른 세속적 세계의 의미에 도달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이다. 벌린에 따르면 비코의 문화적 복수주의는 문화 사이의 실제적 차이를 축소하지 않으면서 어떤 문화의 인간이 행한 것을 다른 문화의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코는 진리를 주장하는 방법이 실제 문화와 분리되어 추상화될 때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비코는 우리에게 문화는 환원할 수 없는 복수이며 한 문화의 인간은 다른 문화의 인간의 경험을, “이성적 사유가 약할수록 더 견고해지는” 상상 또는 환상(*fantasia*)의 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sup>40)</sup>

사이드는 문화에 대한 비코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유럽 근대 문화 안에서 문화적 실천의 한 형식으로서의 근대 오리엔탈리즘의 담론적 일관성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비코의 ‘문화적 복수주의’에 대한 벌린의 해석은 지배적 야망을 배제한 타문화를 이해하려는 의지를 강조하는 사이드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sup>41)</sup> 따라서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사이드의 독창적 연구는 인간 역사에 관한 비코의 다문화주의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이드의 연구는 우리에게 문화에 관한 어려운 질문을 제기한다. 우리는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가? 벌린은 비코의 사유로부터 예술 작품은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영원한 원리와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회적 발전 단계에서 찾을 수 있는 “상징, 특히 언어의 특유한 사용과 목적”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이해된다고 말한다. 벌린은 비코에게서 “새로운 유형의 미학”을 발견한다. 벌린은 이러한 인식만이 다른 문화의 신비를 풀 수 있다고 말한다. 비코의 사유를 7가지 테제로 정리한 벌린의 마지막 테제는 우리에게 다른 문화 이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sup>42)</sup>

40) Giambattista Vico, *La Science nouvelle*, p. 99.

41) Edward W. Said, “Vingt-cinq ans après la publication de « L’Orientalisme »”, pp. 20-21.

(7) 그러므로 감각 지각이 제공하는 그리고 계시가 허락하는 **선험적-연역적, 귀납적-경험적**(*a priori*-deductive, *a posteriori*-empirical)—지식이라는 전통적인 범주에 새로운 종류, 재구성적 상상(the reconstructive imagination)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 유형의 지식은 상상력만이 가능케 하는 다른 문화들의 정신적 삶 안으로, 오직 **환상**(*fantasia*)의 활동—상상(imagination)—만이 가능하게 만드는 다양한 삶의 외관과 방식 안으로의 ‘입장함’으로써 산출된다. **환상**(*Fantasia*)은 비코에게 사회적 변화와 성장 과정을, 그와 병행하는, 인간이 그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상징의 유사한 변화 또는 성장과 연결함으로써, 사실 진자를 후자가 전달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사회적 변화와 성장 과정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상징적 구조 그 자체가 그것이 상징하는 실재 안에 포함 된 것이며, 실재와 함께 변하기 때문이다.<sup>43)</sup>

재구성적 상상력은 단지 다른 문화의 표면을 접하고, 보고, 쓰고, 기록하는 작용뿐만 아니라 그 문화 안으로 입장하는 인식 작용이기 때문에 단순한 상상적 허구가 아니라 실재에 포함되면서도 동시에 실재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벌린의 재구성적 상상력에 관한 설명은 타자 또는 타문화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물론 상상력은 실재의 일부이자 실재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 작동을 명확하게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벌린이 말하는 타문화의 정신적 삶으로의 입장은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사이드의 인문주의는 다른 문화에 대한 환원주의적 이해의 양식에 대항한 “마지막 성벽”으로서, 비코의 ‘새로운 학문’의 세속적인 방법론적 도구를 수단으로, 인간 역사의 연구 영역을 확장시켰다. “인문주의는 개인의 주도적 행위와 개인적 직관을 양분으로 삼으며, 사회 통념과 권위에 대한 존경이 아니다. 텍스트들은 구체적인 방식으로 역사 안에서 사는 생산으로 읽어야 한다.” 사이드에게 문화는 “서로 얽혀있고 서로 대역하며” 공존한다.<sup>44)</sup> 합리적 문헌 해석의 가치와 인문주의 유산을 존중하는 사이드에

42) Isaiah Berlin, *Vico and Herder: Two Studies in the History of Ideas* (London: The Hogarth Press, 1976), p. xix.

43) *Ibid.*, p. xix.

44) Edward W. Said, “Vingt-cinq ans après la publication de « L’Orientalisme », p. 8.

게 다른 문화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지식의 추가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자신의 사회에서 유행하는 고정관념들에서 벗어나 새로운 틀에서 해석할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다른 문화는 그 '시작'에서부터 그 형성의 과정에서 우리의 문화와는 다르며, 우리를 새로운 양식의 사유와 삶으로 인도하고, 비코가 말하는 시적 상상에까지 우리를 이끌 다른 인식론적 지형을 재현하기 때문이다. 사이드에게 재현은 먼저 언어 안에 그리고 이후 문화 속에 역사적 과정의 산물로서 간직된다. 사이드에게 다른 문화를 배운다는 것 또는 이해한다는 것은 혼종성의 시대 비판적 지식인의 결정적인 쟁점이다. 인간 문화의 본성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문명들의 진행/운동 과정 자체이며, 그것이 바로 사이드 인문주의가 연구하는 대상일 것이다.

## V. 맺음말

사이드는 기원과 본질이 생산하는 위로 대신 혼란과 불안을 받아들이는 혼종적 세계로서의 문화를 바라본다. 사이드의 '망명자/추방자' 지식인은 단지 물리적·지리적 추방의 경험뿐만 아니라 현재 체류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기성체제의 고정관념에 저항하며 창조적 사유를 생산한다. 사이드는 근원에 의지하는 본질적 사유에 대한 비판은 물론 창조적 인식을 갖춘 지식인의 전형으로 비코를 내세운다. 사이드의 지식인 관련 논의는 비코의 철학에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분석의 기반을 구성하는 비코의 인간 지식에 관한 논의는 타자 또는 타문화 이해와 관련하여 사이드에게 중요한 영감을 제공한 것 같다. 인간이 낯선 것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통해 이해하는 과정과 자신을 사물 이해의 척도로 세우는 과정은 오리엔탈리즘의 작동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서구가 동양 관련 지식을 수립하는 과정 역시 대상에 대한 객관적 보편적 지식의 축적이라기보다는 서구의 기준, 관습, 이데올로기에 따라 타자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분석은 비코의 지식 논의와 연결될 수 있으며, 지식의 객관성 및 실재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를 경계하도록 이끈다.

한편 비코의 고대 민족들의 공통된 사회적 실천 또는 관습에 관한 논의는 사이드에게는 타자에 대한 인식 가능성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타자 또는 타문화 이해 가능성 문제는 '이해'의 의미에 관

이주의 시대 지식과 문화에 관한 에세이: 사이드(Said)의 비코(Vico) 읽기

한 합의가 쉽지 않으며, 문화를 자문화/타문화와 같이 대립하는 실체처럼 구분짓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 제기에 이르기까지 쉽게 결론에 도달하기 힘든 논의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드는 비코가 언급한 고대 민족들이 공유한 ‘민족의 근본 원칙’ 그리고 벌린이 문화복수주의에 기반을 둔 ‘재구성적 상상’이라고 명명한 비코의 상상/환상(Fantasia)을 인간 문명의 진화 과정과 다른 민족의 문화를 이해할 가능성과 조심스럽게 연결시킨다. 그러나 그러한 연결은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글은 그 과제들에 관한 논의는 다루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사이드의 지식인 논의는 수많은 문화적 차용과 혼종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에 관하여 의지할 수 있는 몇 가지 생각들을 벌린과 비코의 사유와 함께 들려준다. 사이드의 지식인 논의는 세계에 대한 인간 지식의 형성 과정과 타문화에 접근하는 방법론적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혼종적 문화에 관한 유동적, 다공적, 혼종적 이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 mistoire@naver.com

주제어(Key words):

사이드(Said), 비코(Vico), 이주(Migration), 지식인(Intellectual),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혼종성(Hybridity).

투고일: 2022.04.15 심사일: 2022.05.16 게재확정일: 2022.05.17

<국문초록>

## 이주의 시대 지식과 문화에 관한 에세이: 사이드(Said)의 비코(Vico) 읽기

양재혁

이 글은 사이드의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그의 지식과 문화 관련 담론을 살펴보는 에세이다. 사이드는 기원과 본질이 생산하는 위로 대신 혼란과 불안을 받아들이는 혼종적 세계로서의 문화를 바라본다. 사이드의 '망명자/추방자' 지식인은 단지 물리적·지리적 추방의 경험뿐만 아니라 현재 체류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기성체제의 고정관념에 대항하여 창조적 사유를 생산하는 자이다. 사이드의 지식인 관련 논의는 비코의 철학에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분석의 기반을 구성하는 비코의 인간 지식에 관한 논의는 타자 또는 타문화 이해와 관련하여 사이드에게 중요한 영감을 제공한 것 같다. 인간이 낯선 것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통해 이해하는 과정과 자신을 사물 이해의 척도로 세우는 과정은 오리엔탈리즘의 작동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한편 비코의 고대 민족들의 공통된 사회적 실천 또는 관습에 관한 논의는 타자에 대한 인식 가능성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사이드는 비코가 언급한 고대 민족들이 공유한 '민족의 근본 원칙' 그리고 별린이 문화복수주의에 기반을 둔 '재구성적 상상'이라고 명명한 비코의 상상/환상(Fantasia)을 인간 문명의 진화 과정과 다른 민족의 문화를 이해할 가능성과 조심스럽게 연결시킨다. 사이드의 지식인과 문화 관련 논의는 세계에 대한 인간 지식의 형성 과정과 타문화에 접근하는 방법론적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에 관한 유동적, 다공적, 혼종적 이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An Essay on Knowledge and Culture in the Age of  
Migration:  
Said's Reading of Vico**

Yang Jaehyuk

This study examines Edward W. Said's discourse on intellectual and culture, which he interprets as having a problematic point of view with orientalism. He sees culture as a hybrid world with prevalent confusion and anxiety. His view on 'refugee/exile' intellectuals not only experience physical and geographic exile, but also take a critical attitude toward their resident society and produce creative thoughts while opposing the established stereotypes. On the other hand, Giambattista Vico's discussion on human knowledge suggests an important inspiration vis-à-vis Said's understanding of other cultures. The process, in which humans understand unfamiliar things through their knowledge and establish themselves as a measure of understanding things, can explain the mechanism of orientalism. Said's discourse on culture is based on Vico's theory of the principles of ancient nations and the 'fantasia', which Berlin identifies as 'reconstructive imagination'. This study's examination of Said's discussion on intellectual and culture will greatly contribute to our current understanding of a fluid, porous, and hybrid culture by introducing new methodological tools to understand and approach other cultures.

참 고 문 헌

1. 사료

Vico, Giambattista, *La Science nouvelle: Principes d'une science nouvelle relative à la nature commune des nations 1744*, trans. Alain Pons (Paris: Fayard, 2001). *Opere di G. B. Vico*, Fausto Nicolini (ed.) (Bari: Laterza, 1911-41): *The New Science*, trans. Thomas Goddard Bergin & Max Harold Fisch (Cornell University Press, 1948/1959). 잠바티스타 비코, 조한욱 옮김, 『새로운 학문』 (서울: 아카넷, 2019).

\_\_\_\_\_, *L'Antique sagesse de l'Italie*, trans. Jules Michelet (1835), présenté et annoté par Bruno Pinchard (Paris: Flammarion, 1993).

\_\_\_\_\_, *The Autobiography*, trans. Max Harold Fisch & Thomas Goddard Bergin (Cornell University Press, 1944). 잠바티스타 비코, 조한욱 옮김, 『비코 자서전 지성사의 숨은 거인』 (과주: 교유서가, 2020).

Said, Edward W., *Joseph Conrad and the Fiction of Autobiograph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6).

\_\_\_\_\_, *Beginnings: Intention and Method* (New York: Basic Books, 1975).

\_\_\_\_\_, "Vico: Autodidact and Humanist", *Centennial Review* (Summer), 1967.

\_\_\_\_\_, "Vico on the Discipline of Bodies and Texts", *MLN* (October), 1976.

\_\_\_\_\_, *Orientalism* (London: Penguin Books, 2003); *L'Orientalisme. L'Orient créé par l'Occident* (Paris : Le Seuil, 1997).

\_\_\_\_\_, *The World, the Text, and the Critic*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_\_\_\_\_,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Vintage,

이주의 시대 지식과 문화에 관한 에세이: 사이드(Said)의 비코(Vico) 읽기

1994); *Culture et impérialisme* (Paris : Fayard, 2000).

\_\_\_\_\_, *Representations of the Intellectual* (New York: Vintage, Reprint edition, 1996); Paul Chemla(trad.), *Des intellectuels du pouvoir* (Paris: Le Seuil, 1996).

\_\_\_\_\_, *Out of Place : A Memoir* (New York: Knopf, 1999).

\_\_\_\_\_, *Interview, The Edward Said Reader*, éd. par Moustafa Bayoumi & Andrew Rubin (New York: Vintage, 2000).

\_\_\_\_\_, *Reflections on Exile: and Other Literary and Cultural Essays* (London: Granta, 2001).

\_\_\_\_\_, *Power, Politics, and Culture: Interviews with Edward W. Said*, éd. par Gauri Viswanathan (New York: Pantheon, 2001).

\_\_\_\_\_, *Culture and Resistance: Conversation With Edward W. Said* (Cambridge (Massachusetts): South End Press, 2003).

\_\_\_\_\_, 김정하 옮김, 『저항의 인문학: 인문주의와 민주적 비판』 (서울: 마티, 2012).

\_\_\_\_\_, “Vingt-cinq ans après la publication de « L’Orientalisme » : L’humanisme, dernier rempart contre la barbarie”, *Le Monde diplomatique* (Paris: septembre, 2003).  
<http://www.monde-diplomatique.fr/2003/09/SAID/10386> (검색일: 2022. 3. 20).

## 2. 참고문헌

Basto, Maria-Benedita, “Corps poétique et critique démocratique”, Sonia Dayan-Herzbrum (dir.), *Edward Said théoricien critique, Tumultes*.

Bayoumi, Moustafa, “Réconciliation sans contrainte. Said, Adorno et l’intellectuel autonome”, Sonia Dayan-Herzbrum (dir.), *Edward Said théoricien critique, Tumultes*.

Berlin, Isaiah, *Vico and Herder: Two Studies in the History of Ideas* (London: The Hogarth Press, 1976).

Berlin, Isaiah, “Le concept de connaissance chez Vico”, André

- Berelwitsch(trad.), *À contre-courant : Essai sur l'histoire des idées* (Paris: Albin Michel, 1988).
- Brennan, Timothy, “The Making of a Counter-Tradition”, Müge Gürsoy Sökmen and Basak Ertür (ed.), *Waiting for the Barbarians: A tribute to Edward W. Said* (London and New York: Verso, 2008).
- Burke, Peter, 강상우 옮김, 이택광 해제, 『문화 혼종성』 (서울: 이음, 2012).
- Castles, Stephen and J. Miller, Mark J., 한국인민학회 옮김, 『이주의 시대』 (서울: 일조각, 2013).
- Cristofolini, Paolo, *Vico et l'histoir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5).
- Jenkins, Michael, *Christianity, Tolerance and Pluralism: A Theological Engagement with Isaiah Berlin's Social Theor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4).
- Khalidi, Rashid, “Edward Said et la Palestine. Entre université et politique, public et privé”, Sonia Dayan-Herzbrum(dir.), *Edward Said théoricien critique, Tumultes*, N° 35 (Paris: Éditions Kimé, 2010).
- Musil, Robert, “On the Essay”(1914?), Dominick LaCapra, *History and memory after Auschwitz* (New York: Cornell University, 1998).
- Nelson, Cary and Grossberg, Lawrence (ed.),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Chicago: Univ. of Illinois Press, 1988).
- Zecchini, Laetitia, “« Je suis le multiple ». Exil historique et métaphorique dans la pensée d'Edward Said”, Sonia Dayan-Herzbrum (dir.), *Edward Said théoricien critique, Tumultes*.